광주시향, 5월 18일 쇼스타코비치 5번 '혁명'

광주시립예술단체들 상반기 '공연 라인업'

광주시립합창단

손민수

박종화

장사익

시향, 신년음악회 '볼레로'…2월 윤이상 '광주여 영원히'
시립합창단, 3월 '합창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시립극단·발레단, 문화전당과 협업 '셰익스피어' 공연
국악관현악단, 소리꾼 장사익과 합동공연
소년소녀합창단, '사랑의 네가지 진실-러브 스토리'

'올해는 어떤 공연을 만날 수 있을까.'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올 상반기 공연 라인업을 발표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3일 신년음악회를 필두로 2017년을 시작한다. 지난달 28일 취임 연주회를 가진 김홍재 상임지휘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중이며 서울에서 열리는 2017 교향악축제에도 오랜만에 참가한다.

신년음악회에서는 라벨의 '볼레로'와 오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우스' 서곡,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호수' 발레 모음곡을 들려준다. 또 피아니스트 박종화가 슈만의 '피아노협주곡 작품 54'를 협연한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오는 17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 한빛홀에서 한 차례 더 공연된다.

2월 17일에는 '광주여 영원히'를 타이틀로 윤이상의 동명의 곡과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들려준다. 협연자는 피아니스트 이철민이다.

화이트 데이인 3월 14일에는 '러브 콘서트'를 진행한다. 김영언 광주시향 부지휘자의 지휘로 베토벤의 '로망스 2번', 라벨의 '죽은 황녀를 위한 파반느',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들려준다.

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2017 교향악 축제(3월31일)에 참여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다.

5월 18일에는 'Remembering 5·18'에서는 김홍재 지휘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혁명',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디아',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작품 622'를 연주한다. 협연자는 지난해 도쿄필하모닉 클라리넷 수석으로 선임된 조성호다. 그밖에 5월31일에는 글라주노프 '교향곡 4번'을 들려주며 6월 15일에는 '보헤미아'를 주제로 스메타나 '나의 조국', 드보르작 '교향곡 8번',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43'을 연주한다. 협연자는 미시간 주립대 교수인 피아니스트 손민수다.

광주시립합창단은 3월 16일 '합창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이 올 첫 공연이다. 이어 4월 10일에는 국립합창단 초대 지휘자를 역임한 나영수씨를 초빙해 음악회를 진행한다.

5·18 추모 공연(5월 16일)에서는 모차르트와 포레의 '레퀴엠'을 연주하며 6월 29일에는 대중가수 등을 초청, '7080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시립극단과 발레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업, 작품을 준비중이다. 전당측이 올해 '셰익스피어'에 방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한 터라 두 단체 모두 셰익스피어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시립극단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함께 제작한다. 이해제씨가 연출을 맡으며 개성넘치는 연기를 펼쳐온 배우 안석환이 각색과 주연을 맡게 된다. 25일 지역 배우들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 출연 배우를 확정할 예정이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전우치'는 올해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 참가한다. 광주에서는 6월 금남공원에서 3주간 공연을 진행하며 곧바로 대구 행사와 경주에서 열리는대한민국국공립극단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지난해 전당과 함께 '봄의 제전G'를 공연했던 발레단은 독일을 무대로 활동하는 안무가 허용순을 초청, 클래식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에 현대적 색채를 가미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공연한다. 세련된 무대의상과 독일 뒤셀도르프 발레단이 편곡한 음악이 함께한다.

국악관현악단은 3월 15일 소리꾼 장사익과 합동 공연을 진행하며 국극단은 3월 30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은 3월 25일 '사랑의 네가지 진실-러브 스토리' 공연에 이어 6월 17일에는 지난해 미국 LA에서 함께 공연했던 '영 엔젤스' 합창단과 함께 무대를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마음의 키 키우며 고난 이겨낸 '소녀가장'

김두를빛 동화 '이봄해 햇살이 쨍'

지난 2010년 '어린이 동산' 중편동화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김두를빛 작가의 첫 번째 장편동화가 출간됐다.

작품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당당함,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의 중요성을 어린이의 눈을 통해 풀어낸다. 특히 결손가정이 많은 오늘 시대에 어린이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작가는 "2010년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뜻대로 되지 않아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며 "글 쓰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원 없이 글이라도 써보자는 심사로 도전을 했다"고 말했다.

동화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주인공 봄해(봄의 해라는 뜻)를 통해 전개된다. 봄해는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졸지에 '소녀가장'이 된 것이다.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한다. 가끔씩 사회복지사 아줌마가 집에 와 보살펴주지만, 빨래나 심부름 등 집안일은 모든 봄해의 몫이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삶의 무게다.

그런 봄해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다. 여자 축구 꿈나무로 뽑혀 일 년간 미국에 연수를 가는 것이다. 다행히 축구 영재로 선발돼 미국으로 가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간 할머니에 대한 죄스러움과 그리움으로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1년의 미국생활을 통해 봄해는 마음의 키를 조금씩 키워가며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처럼 동화는 일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어린이의 생활을 통해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가질 것을 주문한다. 책을 읽고 나면 할머니와의 끈끈한 사랑이 봄해를 지탱해 준 특별한 힘이었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김 작가는 광주대 문예창작과와 순천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2016년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금을 받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전당 8일 '베트남 설맞이 축제'

전통의상 체험·음식 먹기 등 다채

베트남 이주민들과 광주시민들이 설을 맞아 흥겹게 어울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전남 베트남 교민회가 공동으로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베트남 설맞이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주한베트남대사관, 호반건설, 동광건설 등이 후원한다.

전당 광장에서 진행되는 축제 1부는 베트남 소수민족 전통의상 체험, 설 음식 먹기, 다문화 자녀 대상 엄마나라 전통설날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된다.

2부에서는 극장1로 이동해 개막식과 함께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베트남 현지 개그맨과 초대 가수 등이 출연할 예정이며, 베트남 전통 춤, 초청 가수 공연, 베트남 식 개그콘서트를 선보인다.

베트남 교민회는 이번 축제에 광주·전남 약 1500명 베트남 다문화 가정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교통편의를 위해 각 지역에 셔틀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이 문화원, 창조원 전시 등 전당 내 시설과 문화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문의 1899-556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10~20일 겨울방학 프로그램

국립나주박물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2차로 나뉘며 1차는 10~13일, 2차는 17~20일 오후 2~4시 운영한다.

'반달돌칼의 비밀'(10·17일)은 박물관 전시품을 통해 마한(馬韓) 역사와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이다. 청동시 시대 농사도구를 살펴보고 직접 반달돌칼을 만들어 본다.

'수수께끼 보물섬, 완도'(11·18일)는 현재 진행 중인 '청정바다의 섬, 완도'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이다. 완도와 완도선에 관한 보물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만의 보물섬'을 만든다.

또 약 1500년 전, 영산강 유역 마한(馬韓)의 문화를 대표하는 독널(항아리 모양관)을 만들어 보는 '커~다란, 독널 이야기'(13·20일)도 마련했다.

19일(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설을 맞아 방패연을 함께 만드는 '에헤야 디야, 연을 날려보자!'을 진행한다. 1차 접수는 8일까지, 2차접수는 9~15일 받는다.

그밖에 어린이 체험놀이터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래동화 손인형극', '나만의 금동관 만들기', '문화재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된다. 문의 061-330-782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